

무자기-정신개벽의 종교적 의의

楊茂木*

目次

I. 서론	1. 성선설	2. 성악설
II. 마음의 의의	3. 성무선무악설	
1. 마음의 개념	IV. 대순사상의 인간의 본성	
2. 대순사상에서의 마음	V. 無自欺-精神開關의 실현	
III. 인간의 본성	VI. 결론	

I. 서론

본 논문은 대순진리회의 목적 중에서 무자기-정신개벽(無自欺-精神開關)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목적은 무자기-정신개벽, 지상신선 실현-인간개조(地上神仙實現-人間改造), 지상천국실현-세계개벽(地上天國實現-世界開關)을 말한다. 무자기-정신개벽은 대순진리회의 목적 중에서 첫 번째 목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무자기-정신개벽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다.

무자기-정신개벽(無自欺-精神開關)은 종지에서 밝힌 것처럼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서 인간이 마땅히 이루어야 할 정신자세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자기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품성의 함양에서부터 시작된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사람은 남을 속일 수도 없으며 세상을 속일 수도 없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경영하더라도 능히 덕목으로서 다스릴 것이며 이러한 사람이 다스리는

* 대전대 교수, 정치학 박사

세상은 맹목적 이기주의와 편협을 벗어나 화합과 이해로써 번영을 구가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대순사상에서 목적의 첫째로 무자기-정신개벽(無自欺-精神開關)을 자리하도록 한 것이며 무자기는 곧 정신개벽을 통해 이루어짐을 설명하고자 짝을 이루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무자기-정신개벽(無自欺-精神開關)은 인간의 마음, 본성 등에 관한 것으로, 인간이 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참 마음인지, 인간의 마음이 원래 참마음인 것인지, 혹은 누구에게나 있는 그 마음이라는 존재의 개념적 정의는 어떠한 것인지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는 고대 철학자들부터 공들여 탐구해온 주제이지만 어느 것도 흡족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었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인간의 마음에 관한 관념론, 유물론 등 상반되는 입장에서의 개념 정의는 오늘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분수령으로도 작용했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마음의 수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곧 마음과 신체가 어떻게 작용하여 어떤 상호 연관성을 갖고 기능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온 철학자들의 온갖 논구를 달고 대순사상은 명쾌하게 무자기를 설명하고 있는 셈이다. 무자기를 이루기 위해서 정신개벽을 이룬다는 것은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에 대한 일차원적인 정의를 초월하여 진정으로 인간이 가져야 할 마음자세를 정의했다는 점에서 정신의 연구를 일원론적으로 보며 그 자체의 규명만을 문제로 삼는 대다수 철학자들의 입장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는 또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구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본성을 타고났는지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논의해 왔지만 뚜렷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없다. 역사적으로 많은 철학자들이 이러한 의문에 대해 숭한 의견을 제시해 왔지만 아직도 정설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는 셈이다. 그래서 대순사상에서 목적으로 밝힌 무자기-정신개벽(無自欺-精神開關)은 철학적 논구의 대상을 뛰어넘는 것이며 후천세계의 선경세계를 열어갈 진리의 한 방편이 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주제인 대순사상의 첫 번째 목적인 무자기와 정신개벽은 인간

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신적인 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먼저 인간의 마음과 대순사상에서 보는 마음의 개념, 인간의 본성과 대순사상에서의 본성에 관해서 고찰하고, 무자기와 정신개벽의 실행에 관해 살펴보려고 한다.¹⁾

II. 마음의 의의

1. 마음의 개념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무엇인가 라는 개념 정의는 용이하지 않다. 마음이란 형체가 없어서 파악할 수 없는 정신작용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설명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인간의 마음에 관해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철학자들이 이원론, 관념론, 유물론, 기능주의, 그리고 양면이론의 입장 등에서 연구를 하여 왔다.²⁾

고대부터 철학자들은 생물학적 속성인 신체와 철학적 속성인 마음에 관하여 사색하고 연구하였다. 마음과 신체가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고 있으며, 어떻게 상호 작용(interactionism)하고 있는가를 알고자 하였다. 이러한 심신 상관론에 대한 관심은 그리이스의 철학자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중세의 기독교 사회를 거쳐 근세의 데카르트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신체와 정신에 관한 연구들은 일원론적 입장과 이원론적 입장으로 구별된다.

첫째, 신체와 정신은 동일하다는 심신일원론(心身一元論) 입장에서는, 인간의 마음과 신체는 하나로 존재한다고 한다. 사람의 마음과 신체는 별개의

-
- 1) 필자는 인간의 마음과 본성에 관해서는 拙稿, “대순사상에서의 안심과 정치문화의 상관성 고찰”, 「대순사상논총」, 제7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9)에서 이미 연구한 바 있다. 인간의 마음과 본성에 관해서는 이 논문의 내용을 재정리하고, 무자기와 정신개벽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 2)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철학자들이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플라톤이나 데카르트는 이원론의 입장에서, 험펠이나 라일,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적 행동주의 입장에서, 버클리나 헤겔은 관념론의 입장에서, 플레이스나 데이빗슨, 그리고 혼드리치는 유물론의 입장에서, 퍼트남이나 루잉스는 기능주의 입장에서, 스피노자나 러셀, 그리고 스트로슨은 양면이론의 입장에서 등 여러 가지 입장에서 마음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마음이 진정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영원한 문제로 남아 있다.

존재가 아니라, 동일 실체의 양면이라는 것이다. 이 이론을 주장하는 철학자로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384~322 B. C.), 스피노자(Spinoza: 1632~1677) 등이 있다.

둘째, 인간의 마음과 신체는 각기 다르다는 심신이원론(心身二元論)이 있다. 사람의 마음(정신)과 신체(육체)는 각각 서로 다른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존재이지만, 심적 사건이 신체 사건의 원인이고 신체 사건은 심적 사건의 원인이 되듯 상호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을 주장하는 철학자로는 플라톤(Platon: 427~347 B. C.), 데카르트(Decartes: 1596~1650) 등이 있다.

그러나 관념론자들은 사람에게서는 오직 마음만이 존재한다는 이론을 제시한다. 관념론은 마음과 물리적 대상인 신체가 모두 존재한다는 이원론과는 달리, 물리적 대상은 마음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³⁾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물리적 대상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존재하는 것은 오직 의식에 의해서만 존재한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심적인 것이라 한다. 이 이론을 주장하는 철학자로는 버클리(George Berkeley), 헤겔(G. W. F. Hegel) 등이 있다.

때로는 마음을 인간의 영혼이나 심령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철학자 버클리는 “마음은 존재하고, 또 두 가지 종류의 마음, 즉 유한한 마음과 무한한 마음이 있다”⁴⁾고 하면서, 무한한 마음은 오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전통적인 전지 전능하고 선한 신격 속성을 소유하는 신이며, 유한한 마음은 인간의 영혼이라고 말한다. 플라톤이나 데카르트, 그리고 종교철학자인 스윈번(Richard Swinburne)은 “마음은 불멸의 영혼과 동일하다”고 말하였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은 신체의 형상이다. 따라서 죽음 뒤에는 살아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지성(intellect)이라는 의미에서 “마음은 불멸”이라고 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는 사람의 비물질적 영혼은 그 사람의 신체적 죽음 뒤에도 생존한다고 하였다.

맹자는 “자기의 본심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자는 그 본성을 아는 자이고, 그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아는 자이다. 그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르는

3) Stephen Priest, *Theories of the Mind*: 박찬수 외 옮김, 마음의 이론(서울: 고려원, 1995), p. 100.

4) 같은 책, pp. 116~117.

것이 바로 하늘을 섬기는 일이다”⁵⁾ 라고 하였으며, 주자는 맹자의 심, 성, 천(心性天)에 대하여 “성은 마음이 갖추고 있는 리(理)요, 천은 또한 리가 좇아 나오는 곳”⁶⁾이라 하였으며, 정자(程子)는 “심, 성, 천은 일리(一理)이다. 리(理)로써 말하면 하늘이라 하고, 사람과 만물이 품성으로 말하면 성(性)이라 하고, 사람에게 보존되어 있음을 가지고 말하면 마음이라 한다”⁷⁾ 라고 하여 이 세 가지를 일리(一理)로 정리하였다. 심지어 『주역』 <절중>(折中)에는 마음을 가리켜 ‘신명(神明)의 집’ 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만일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 한 점의 더러움도 없게 할 수 있다면 이 마음의 고요함은 신명과 하나가 된다. 점을 치기 위하여 시초의 즐거움을 늘어놓고 괘를 구할 때 마음을 재계한 채로 지낼 수 있다면 이 마음이 움직여 신명과 통하게 된다. 마음이 있으면 신이 있게 된다”⁸⁾고 하였다.

학문적으로는 마음은 경험을 갖게 하는 정신작용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쓰이는가 하면, 철학에서는 마음을 「정신」과 「마음」으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철학에서 정신은 마음의 본질적인 실체로서 마음의 작용을 통제한다. 따라서 마음은 신체적 작용의 견제(牽制)를 받으나, 정신은 그 제약을 벗어나 자주적 기능을 영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심리학에서는 마음을 의식과 정신기능으로 구분한다. 의식은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현상이며, 그것은 보는 작용, 또는 기능으로 발생한다. 행동주의심리학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행동의 기제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행동을 설명하는데 필요하다면 마음이라는 것을 구성하고, 그것을 과학적 체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대순사상에서의 마음

대순사상에서는 마음은 인간의 본질이라고 한다. 마음에는 양심(良心)과

5) 孟子, <盡心章句 上>,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 則知天矣. 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

6) 같은 책, 같은 곳, 朱子 註, “性則心之所具之理 而天又理之所從以出者也.”

7) 같은 책, 같은 곳, 程子 註, “心也 性也 天也 一理也 自理而言 謂之天 自稟受而言謂之性 自存諸人而言 謂之心.”

8) 『周易』 <折中>, “心即神明之舍 人能洗之而無一點之累 則此心靜與神明一 於揲蓍求卦之時 能以齋戒存之 則此心動 與神明通 心在則神在矣.”

사심(邪心)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대순사상에서 양심은 천성(天性) 그대로의 본심을 말하는 것이고, 사심은 물욕에 의하여 발동하는 욕심을 말하는 것이다. 마음은 인간 존재의 집약점이며 인간의 종교적 뿌리를 이루고 있다. 마음속으로부터 가진 모든 생각, 정서, 욕망 등이 발출하며 마음 속에서 인간은 신(神)과 심오한 관계성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현무경』(玄武經)에 “천지의 중앙은 마음이다. 때문에 동서남북에 몸이 마음에 의지한다(天地之中央心也 故東西南北身依於心)”⁹⁾고 한 말이나, “심령신대(心靈神臺)”¹⁰⁾라고 한 말 등은 인간의 마음이 천지의 주인이며 곧 신이라는 의미라 하겠다.¹¹⁾ 대순사상의 “하늘의 솟과 땅의 솟과 사람의 솟이 모두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이란 귀신의 비밀한 기틀(樞機)이요 대문(門戶)이요 길(道路)이다. 기틀을 열고 닫으며 대문을 들락날락하며 길을 오고 가는 것은 신(神)이다. 혹 선한 것도 있고 혹 악한 것도 있다. 선한 것은 스승으로 삼고 악한 것은 고쳐 쓰게 되니 내 마음의 기틀과 대문과 길은 천지보다 더 크니라”¹²⁾, “마음은 일신의 주이니 사람의 모든 언어 행동은 마음의 표현이다. 그 마음에는 양심 사심의 두 가지가 있다. 양심은 천성 그대로의 본심이요. 사심은 물욕에 의하여 발동하는 욕심이다...”¹³⁾, “사람의 행동 기능을 주관함은 마음이니 편벽됨이 없고 사사(私邪)됨이 없이...”¹⁴⁾라는 말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마음은 신체생활의 원인이며 본원(本源)으로서 그에 관한 학문도 마음의 본질과 속성을 연구하는 것”¹⁵⁾이라고 한 말 등은 바로 「인간의 본질은 마음」¹⁶⁾이란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인간 만사가 모두 마음 속에 있으니 마음을 굳건히 지켜서 깨끗이 하고 또 올바르게

9)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교운: 1-66.”, 『전경』(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9), p. 183.

10) 같은 책, “교운: 1-66.”, p. 187.

11) 림영창·배용덕, 甌山神學概論(서울: 태광문화사, 1984), p. 106.

12) “天用地用人用統在於心 心也者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 開閉樞機出入門戶往來道路也 或有善或有惡 善者師之惡者改之 吾心之樞機門戶道路大於天地.”, 앞의 책, “행록: 3-44.”, p. 48.

13) 대순진리회 편, 포덕교화기본원리(서울: 대순진리회교무부, 1975), p. 14.

14) 대순진리회 편, 대순진리회요람(서울: 대순진리회교무부, 1969), p. 15.

15) 下中邦彦, 心理學事典(東京: 平凡社, 1962), pp. 359~360.

16) 鄭大珍, “大巡 思想 研究를 위한 提言,” 『대순사상논총』-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6), p. 5.; 림영창·배용덕, 앞의 책, p. 107.

가지면 자기 자신이 편안해지고 이웃이 편안해지며 사회와 나라가 화평해져서 드디어 후천 선경을 이룩할 수 있다고 한다.

Ⅲ.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인 마음이 선(善)한 것인가 아니면 악(惡)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마음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다. 맹자(孟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고, 순자(荀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주장한다. 고자(告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함도 없고 선하지 않음도 없다고 하는 성무선무악설(性無善無惡說)을 주장한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관한 주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성선설(性善說)

성선설은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다”¹⁷⁾는 것으로, 맹자(孟子:B.C. 372~289)가 체계화한 사상이다. 성선사상은 오랜 옛날부터 있었던 사상으로 시경(詩經)이나 서경(書經), 중용(中庸)이나 좌전(左傳) 등에서도 보인다. 그러나 맹자가 공자의 인(仁)사상에 근거하고 자사(子思)의 성(誠)사상을 보다 더 발전시켰다.

맹자가 인간의 본성은 선하며, “사람은 선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만물 중에 신령스러운 존재다”(此人之性 所以無不善 而爲 萬物之靈也) 라고 한 것은 인간의 본성 속에 선의 요소가 있다는 의미이다. 인간의 본성 속에는 선성(善性) 외에도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요소가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물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인간의 본성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맹자의 인성론(人性論)을 가리켜 맹자는 본연지성(本然之性)¹⁸⁾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기질지성(氣質之性)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인간성

17) 孟子, <告子章句 上>, “孟子曰 水一信無分於東西, 無分於上下乎, 人性之善也 猶水之就下也, 人無有不善 水無有不下.”

18) 이 말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뜻이다.

에 내재(內在)하고 있는 동물성은 간과했다고 말하기도 한다.¹⁹⁾ 맹자도 인간의 본성에는 생리적인 기질지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사람은 금수와 다른 점이 극히 적다. 서민은 인륜을 버리지만 군자는 이를 보존한다.”²⁰⁾

“입이 맛을, 눈이 빛을, 귀가 소리를, 코가 냄새를, 사지가 편안한 것을 바라는 것은 본성이기는 하나 거기에는 명(命)이 있기 때문에 군자는 이것을 본성이라고 이르지 않는다.”²¹⁾

맹자는 사람의 성(性) 속에는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밝은 지혜가 들어 있으며, 사람이 도덕을 행하고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인의예지의 성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인의예지를 사람은 잘 깨닫지 못하지만 군자가 되면 빨리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맹자는 인의예지의 도덕적 근거를 인간의 본성에 두려 하였으며, 인간의 본성이 곧 도덕의 본체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군자의 본성, 즉 군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본성을 밝히는 데 있으며, 그러한 일이 바로 군자의 사명이며 군자가 즐거워하는 바라고 하였다.

맹자의 성선설은 이론적 근거를 사단설(四端說)에 두고 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끄러워 할 줄 아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또는 사양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 등 사단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사단을 맹자는 구체적 예증을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측은지심(惻隱之心)

측은지심이란 사단(四端)의 하나로, 불쌍히 여겨서 언짢아하는 마음을 뜻하며, 측은심(惻心)이라고도 한다. 맹자는 “남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사람이 라면 모두 가지고 있다. … 남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인(仁)이다.”²²⁾라 하여 인을 강조한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남에게 차마 못하는 마음이

19) 한국철학연구회 편, 哲學研究, 제16집(서울: 한국철학연구회, 1975), p. 24.

20) 孟子, <離婁章句 下>, “孟子曰, 人之所以異於禽獸者 幾希 庶民去之 君子存之.”

21) 같은 책, <盡心章句 下>, “孟子曰, 口之於味也 目之於色也 耳之於聲也 鼻之於臭也 四肢之於安佚也 性也 有命焉 君子 不謂性也.”

22) 같은 책, <告子章句 上>, “惻隱之心 人皆有之. … 惻隱之心 仁也.”

있다... 이른바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차마 못하는 마음을 지녔다는 까닭은 이러하다. 지금 어떤 어린애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본다면 누구나 깜짝 놀라고,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²³⁾라고도 한다.

맹자는 어린애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본다면 누구나 깜짝 놀라고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 어린애의 부모와 친해 보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마을 사람이나 친구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 구하지 않으면 비난의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오직 사람은 누구나 본래의 성품 가운데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 수오지심(羞惡之心)

수오지심은 불의(不義)를 부끄러워 하고, 불선(不善)을 미워하는 마음을 뜻한다.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맹자는 “악을 부끄럽게 여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사람이 아니다... 악을 부끄럽게 여기고 미워하는 마음은 의(義)의 시작이다.”²⁴⁾라 한다. 사람에게서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불인인(不忍人)의 마음을 비롯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남의 옳지 않은 것을 미워하는 수오(羞惡)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3) 사양지심(辭讓之心)

사양지심은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을 뜻한다. 사람은 누구나 사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맹자는 “사양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사람이 아니다...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시작이다.”²⁵⁾라 하고 있는데 ‘예’(禮)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칙(儀則), 인사(人事)로서 공경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고마운 뜻을 나타내는 언행이나 사례(謝禮)로 보내는 금품 등의 의미를 가진 이러한 예는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온다. 만약 사람에게 있어 사양

23) 같은 책, <公孫丑章句 上>, “人皆有不忍人之心... 所以謂人皆有不忍人之心者 今人乍見孺子將入於井 皆有怵惕惻隱之心.”

24) 같은 책, 같은 편, “無羞惡之心 非人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25) 같은 책, 같은 편, “無辭讓之心 非人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지심이 없다면 그건 예가 아니고 실례(失禮)가 되기 때문에, 맹자는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시작이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하였던 것이다.

(5) 시비지심(是非之心)

시비지심은 시비를 가릴 줄 아는 마음을 뜻하며, 시비(是非)는 지(智)의 단(端)이기도 하다. 사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을 언제나 갖고 있다는 것이다. “시비(是非)를 가리는 마음이 없는 자는 사람이 아니다… 시비를 가리는 마음은 지(智)의 시작이다.”²⁶⁾라 하여, 시비를 가리는 마음은 지의 시작이며,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없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하였다. “사람에게 이러한 사단이 있는 것은 마치 사람에게 사지가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사단이 사람에게 있으면서도 자기는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해치는 사람이고, 또 자기 임금더러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임금을 해치는 사람이다. 자기에게 있는 이 사단을 확충시킬 줄 알게 된다면, 마치 불이 처음 타오르고 샘물이 처음 솟아오르는 것과 같다. 진실로 그것을 확충시킬 수 있다면 온 천하를 보호함에도 충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부모조차도 섬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맹자의 성선설은 “사람 치고 선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물 치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물이 없다(人無有不善, 水無有不下)”²⁷⁾는 말처럼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사람은 누구나 어진 마음을 지니고 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남에게 사양하는 마음, 일의 시비 선악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이 그것이

26) 같은 책, 같은 편, “無是非之心 非人也… 是非之心 智之端也.”

여기서 ‘지’ (智)란 말은 단순히 알고 있는 내용이나 사물을 뜻하는 지식(知識: knowledge)이라기 보다는 일체의 사상이나 도리(道理)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마음 속의 미망(迷妄)을 끊는 작용, 즉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혜(智慧: wisdom)를 뜻한다 하겠다. 왜냐하면 중국의 전통적인 사상에서의 지(智)의 관념은 사물에 대한 객관지(客觀知)가 아니고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선악의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7) 孟子, <告子章句上>.

다. 사람은 누구나 다 착하고 올바른 인간이 될 수 있는 인의예지, 즉 사단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충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올바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진 통치자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사적 욕구에만 치우치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사단은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즉 악한 인간도 본성은 선하나 타고난 본성(性情)이 아닌 후천적인 것이다.

2. 성악설(性惡說)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그것이 선한 것은 인위(人爲)의 결과라는 것이다”²⁸⁾ 라는 것으로, 순자가 주창하였다. 성악사상은 순자 이전에도 있었으나 공자의 성론을 이어 받아 자기의 학문적 기초로 삼은 것은 순자가 처음이다. 순자가 인간의 본성은 악하며, “인간의 본성을 따르고 인간 본래의 감정에 따르면, 사람들 사이에 쟁탈이 생기고 예의를 저버리게 되고 이치를 어지럽히게 되어 세상은 드디어 혼란에 빠지게 된다”(然則從人之性 順人之情 必出於爭奪 合於犯文亂理 而歸於暴)라고 한 것은 인간의 본성 속에 악의 요소가 있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예의를 갖추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맹자가 “자기의 마음을 다하는 자는 본성(性)을 알게 되며, 자기의 본성을 알면 천(天)을 알게 된다.”²⁹⁾ 고 하였는데,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 인의예지의 사단인 양심을 갖고 있기에, 이 양심의 싹을 잘 기르기에 힘쓰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아는 사람으로, 인간의 본성을 알면 하늘의 이치도 따라서 알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순자는 “하늘(天)에는 하늘로서의 사시(四時)의 운행이 있고, 땅(地)에는 땅으로서의 만물의 생산이 있고, 사람(인간)에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다스려야 할 일이 있다. 대저 이런 것을 가리켜 능히 (천지와) 나란히 된다고 하는 것이다.”³⁰⁾ 즉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은 각각 나름대로의 독

28) 荀子, <性惡篇>, “人之性惡 其善者僞也.”

29) 같은 책, <盡心章句 上>,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則知天矣.”

자적인 직분을 가진 존재로 보고 있다. 순자가 “하늘은 사람이 추위를 싫어한다고 해서 겨울을 멈추어 없애지 아니하고, 땅은 사람이 먼 거리를 싫어한다고 해서 광대함을 멈추어 없애지 아니하고, 군자는 소인들이 흉흉(匈匈)하다고 해서 도덕적 행동을 멈추지 아니한다. 하늘에는 항구불변의 법칙이 있고, 땅에는 일정한 도리가 있고, 군자에게는 일정불변의 체통이 있다. 군자는 그 일정불변의 체통에 말미암는데 소인은 그 공리(功利)를 계산한다”³¹⁾고 하였다.

순자가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주장한 이유는 첫째, 인간의 본성은 악하며, 선한 것은 인위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고 그것에 따르는 까닭에 남과 쟁탈을 하고 사양함을 갖지 않는다. 또 태어나면서부터 남을 질투하고 미워함이 있는 까닭에 남을 해치는 일이 생기고 성실함과 신의를 갖지 않는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아름다운 소리와 미색(美色)을 좋아하는 이목(耳目)의 감각적인 욕망이 있는 까닭에 무절제한 제약이 생기고 예의와 문리(文理)를 갖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며, 인간이 그 본성대로 살아가면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반드시 스승에 의한 규범의 강화와 예의에 의한 인도(引導)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성정(性情)대로 하면 인간은 방종하게 되고, 방자한 행동을 꺼리지 않게 되며, 예의를 어기게 되는 것이다.

둘째, 인간의 본성은 태어난 그대로의 자연적이라는 것이다. 맹자의 “사람이 학문하여 자기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그 본성이 선한 까닭이다”³²⁾라고 한 주장에 대해 순자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잘 알지 못하고 인간의 본성과 후천적인 인위와의 구별을 잘 살피지 못한 것이다”³³⁾라고 반박한다. 즉 본성이란 것은 하늘이 성취한 자연적인 것으로 후천적으로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배워서 할 수 있고 노력해서 이를 수 있는 것은 인위이며, 그것은

30) 荀子, <天論篇>, “天有其時 地有其財 人有其治 天是之謂能參.”

31) 같은 책, 같은 편, “天不爲人之惡寒也 而輟冬 地不爲人之惡遼遠也 而輟廣 君子不爲小人之匈匈也 而輟行 天有常道矣 地有常數矣 君子有常體矣 君子道其常 小人計其功.”

32) 荀子, <性惡篇>, “人之學者 其性善也.”

33) 같은 책, 같은 편, “是不然 是不及知人之性 而不察乎人之性僞之分者也.”

성인이 만들어낸 예의 등을 말하는 것이다.

셋째, 인간의 본성과 후천적인 인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의란 것도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聖人)의 인위에 의해서 생긴다. 예를 들면 목공이 나무를 쪼개어 기물을 만들지만, 그것은 목공의 본성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공의 작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인은 사려를 거듭하고 많은 작위를 되풀이하여 예의를 만들고 법도를 제정하지만, 그것 또한 성인의 작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본시부터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넷째, 인간이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타고난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개 덕이 박한 사람은 후해지기를 바라고, 용모가 잘 생기지 못한 사람은 아름답게 되기를 바라고, 집이나 땅을 좁게 가진 사람은 넓은 집이나 땅을 갖기를 바라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높아지기를 바라고, 자기가 자기에게 자신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외부에서 찾게 된다. 그런가 하면 장가들어 처자가 갖추어지면 곧 어버이에 대한 효도가 쇠(衰)하고, 물질적 욕망이 충족되면 곧 친구에 대한 신의가 쇠하고, 지위나 봉록이 높아지고 많아지면 곧 군왕에 대한 충성이 쇠하여진다. 이로써 본다면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성악사상은 주로 중국 고대의 춘추시대(春秋時代: B.C. 770~B.C. 403)에 격심한 정치적 변혁을 배경으로 하여 성립한 하나의 덕목론적(德目論的) 정치철학이라 할 수 있다. 사인(士人)에 의한 군권(君權)의 강화를 설파하였고 그 결과 법가(法家)의 학설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서양의 성악설적 정치사상은 홉즈(Thomas Hobbes)³⁴⁾ 등에서 나타났다. 때문에 맹자의 성선설과

34) 서양에서는 홉즈(Thomas Hobbes: 1588~1679)가 먼저 성악설을 주장하였다. 그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Leviathan: 1651)에서, 인간의 자연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Bellum omnium contra omnes)인 상태로서 “인간은 인간에 대하여 늑대”라고 하였다. 즉 인간은 육체적·정신적 능력에 있어서 평등하며 목적 달성의 욕망도 평등하나 원래 인간 자체가 비사회적, 이기적, 성악(性惡)한 것이기 때문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전개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인간이 이성적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자연상태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성악적(性惡的) 본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동계약에 입각한 <필요악으로서의 거

순자의 성악설, 그리고 인정과 법치는 나름대로 모두 각각 그 합리성이 있다 하겠다.

3. 성무선무악설(性無善無惡說)

성무선무악설은 “인간의 성은 선천적인 본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선천적인 본성은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선함도 없고 선하지 않음도 없다” 라는 것으로, 춘추전국시대 제(齊)의 사상가인 고자(告子) 철학의 근본이 되는 사상이다. 이 성무선무악 사상은 맹자와 논변을 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고자가 인간의 본성은 자연성 그대로이며, “사람의 본성은 버드나무와 같고, 의(義)는 버드나무로 만든 바구니와 같다. 사람의 본성으로 인의(仁義)를 행한다면, 그것은 마치 버드나무로서 바구니를 만드는 것과 같다”³⁵⁾ 라고 한 것은 인간의 본성 속에는 선도 악도 없다는 의미이다. 즉 백지(白紙)라는 것이다. 나아가 고자는 선악이란 완전히 후천적·인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였다. 고자는 “사람의 본성은 마치 흐르는 물과 같다. 동쪽으로 물꼬를 트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트면 서쪽으로 흐른다. 사람의 본성에 선함과 선하지 않은 구분이 없는 것은, 물에 동쪽과 서쪽의 구별이 없는 것과 같다.”³⁶⁾ 고 하였다. 사람의 본성은 감혀 있는 물과 같으며, 사람이 어

대한 국가>가 구성된다고 하였다. 자연권(right of nature)은 자연상태에 있어서의 인간이 가지는 권리인 것이며, 인간이 자기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의 힘을 사용하는 데서 자생한 것이었다. 자연상태에서는 공동의 권력이 없기 때문에 법이 없으며, 법(法)이 없기 때문에 정의(正義)와 부정의(不正義)의 구별도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와같은 상태에서 벗어나서 국가상태로 옮겨가게 된다고 해서 자연과는 구별되는 자연법(law of nature)을 명백히 했다. 즉 인간은 자연상태에서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보존을 위해 서로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하며, 제재(制裁)의 권력을 가진 군주와의 계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간이 일단 군주와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을 수정, 취소, 또는 변경, 해제할 수 없으며 오직 복종만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즉 군주의 자의적 지배는 배제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성악설은 인의와 법정을 잘 실천하면 우(禹)와 같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순자의 성악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겠다.

35) 孟子, <告子章句 上>, “性猶杞柳也 義 猶柶捲也 以人性爲仁義 猶以杞柳爲柶捲.”

36) 같은 책, 같은 편, “性猶湍水也 決諸東方則東流 決諸西方則西流 人性之無分於善不善也 猶水之無分於東西也.”

면 방향으로 작위를 가하는나에 따라 흐르는 방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맹자는 “물에는 정말 동서의 구별이 없지마는, 어찌 상하의 구분이야 없겠는가?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은 물이 아래로 흘러 내려가는 것과 같다.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지 않는 물이 없듯이 그 본성이 악한 사람은 없다. 지금 물을 손으로 쳐서 사람의 이마 위로 튀어오르게 할 수가 있고, 또 거세게 흘러가게 한다면, 산에라도 올라가게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물의 본성이겠는가?”³⁷⁾하였다.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 가듯이 인간의 본성도 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이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인위적으로 물꼬를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흘러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물이 외부의 압력을 받아 그렇게 되는 것이지 물의 본성이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 것처럼, 사람이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본성 또한 이와 같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자는 또 “생(生) 자체가 본성이다.”³⁸⁾라고 하여, 인간이 태어나 살아가는 그 삶 자체, 즉 자연 상태 그대로가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맹자는 “생을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흰 것을 희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가?... 그렇다면 흰 것의 흰 것, 흰 눈의 흰 것, 백옥의 흰 것은 같은가?... 그렇다면 개의 본성은 소의 본성과 같고, 소의 본성은 사람의 본성과 같은가?”³⁹⁾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사물이 모두 다르듯이 모든 동물의 본성이 각각 다르며, 특히 사람의 본성만이 선을 지니고 있으며, 사람이 도덕을 행하고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인의예지의 성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비판을 하였다.

이에 대해 고자는 하나같이 “그렇습니다”(然)라고 하여 맹자의 주장을 반박한다. 고자는 결국 인간 본성에는 선악의 속성(屬性)은 없고 단지 <안>

37) 같은 책, 같은 편, “水信無分於東西 無分於上下乎 人性之善也 猶水之就下也 人無有不善 水無有不下 今夫水 搏而躍之 可使過顙 激而行之 可使在山 是 豈水之性哉.”

38) 같은 책, 같은 편, “生之謂性.”

39) 같은 책, 같은 편, “生之謂性也 猶白之謂白與... 白羽之白也 猶白雪之白 白雪之白猶白玉之白與... 然則犬之性 猶牛之性 牛之性 猶人之性與.”

에는 인(仁)이 존재하고 의(義)는 <밖>에 있다. 하여, 외적조건을 정리한 정신 양장(養長)을 주장하였다고 하겠다.

성무선무악사상은 주로 제후들의 불인한 정치와 악육강식하는 침략행위를 규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립한 하나의 덕목론적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IV. 대순사상에서의 본성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고자가 ‘인간의 성은 선천적인 본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선천적인 본성은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선함도 없고 선하지 않음도 없다’ ‘선악이란 완전히 후천적 인위적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한 성무선무악설과 유사하다. “인간의 심성을 선이나 악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심성의 바탕은 백지와 같은데 그 위에 인간이 선이나 악으로 물감을 칠해 나간다” 40)는 것과 비슷하다.

증산은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41) 라고 말하면서, 증산이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삼계공사를 한다고 하였다. 증산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증산은 “지난 선천 영웅시대는 죄로써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시대는 선으로써 먹고 살리니 죄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라. 선으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라.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써 먹고 살 도수를 짜 놓았도다.” 42)하였다.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

40) 립영창·배용덕, 앞의 책, p. 111.

41)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공사: 1-3.”, 「典經」(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p. 98.

42) 같은 책, “교법: 2-55.”, p. 244.

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43)

인간은 선천 영웅시대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선천시대의 도수는 짧게 끝날 수밖에 없었다. 증산은 후천 성인시대를 열어 장구한 인류 역사를 준비했고, 그 사실을 대순진리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 모든 중생은 선천시대에는 죄를 먹고 살았으나 증산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후천시대에 와서는 죄가 아닌 선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수를 짜 놓았다는 의미이다. 인간은 제각기 갖고 있는 사상이 달라 제각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반목 투쟁을 하게 되나, 이것을 해원으로 없애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면 후천 선경이 이룩되고, 드디어 모든 인간은 선한 사람이 되어 살기 좋은 낙원의 세상이 된다는 것이다.

증산은 또 예로부터 쌓인 원(冤)을 풀고 원에 의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한다고 말하면서, 원의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 단주(丹朱)가 불초하다 하여 요(堯)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 44)

단주가 원(冤)을 품어 순을 죽게 하고 또 두 왕비를 강에 빠져 죽게 함으로써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혔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주로 인한 원의 뿌리가 박히기 전의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틀림없이 선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천지에 원의 종자가 가득하게 쌓임으로써 인간은 결국 파멸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부패하게 되었으며, 결국 부패한 인간의 인격 속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할 것이다.

인간이 선천시대에는 죄를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까닭에 선을 행할 수

43) 같은 책, “공사: 3-5.”, p. 130~131.

44) 같은 책, “공사: 3-4.”, p. 130.

없었으나, 후천시대에는 증산의 도수 정리 조화로 후천 선경이 이룩되어 인간은 선을 먹고 살아가게 되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죄를 먹고 살면서도 상대적인 의미의 선을 추구하며 실천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즉 죄는 육신과 영혼을 관통하지만 잠정적이고 무상하다. 이에 반해서 선과 정의는 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죄 속에서 삶을 영위하면서도 영원을 믿고 선을 추구하며 진리를 탐구하며 의(義)로움을 창조한다. 또 이러한 삶 자체가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이기도 하다.

V. 무자기와 정신개벽의 실현

무자기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다. 마음은 행동의 바탕이 되니 마음을 울곧게 다스리는 것이 바른 행동을 낳는다. 울곧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허욕을 버려야 한다. 울곧은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남을 누르고 남을 이기고자 하는 경쟁심에서 비롯된다. 그리하여 허욕을 버리고 본연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때에 무자기를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무자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신개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신개벽은 무자기를 실행하는 것이 새로운 세계를 여는 작업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인간 정신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무자기를 실행하기 위한 정신개벽은 본연의 양심을 완전히 회복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인간의 본연의 양심(良心)이란 무엇인가? 양심이란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바르고 착한 마음을 말한다. 양심은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여 정선(正善)을 하도록 명령하고 사악(邪惡)을 물리치게 하는 통일적인 의식을 뜻한다. 자기의 행위에 관하여 선악(善惡)과 정사(正邪)의 판단을 내리는 본연적(本然的)이고 후천적인 자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일반 동물과는 달리 서서 다니고, 물이나 도구를 사용하고, 문자를 사용하는 등의 일반적 특성 외에도 존엄성 및 사회성 등의 특별한 특성이 있다. 인간은 이성적·양심적 판단 능력에 따르기도 하고, 개인적인 욕망이나 욕구, 사회적인 관습이나 사회적 요구를 둘러싸고 각종 갈등을 체험하면

서 살아간다.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개인적인 많은 욕구와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감 사이에 무수한 갈등을 갖게 된다.

인간은 고립되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개인은 스스로 독자적인 판단과 논리에 따라 행동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개인의 선택과는 관계없이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적 환경이 개인의 행위나 선택을 좌우할 수 있다. 그것은 개인이 인간의 본질적 요소인 주체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의 실현 과정에서 직면하는 윤리적 문제로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양심이 개인 및 사회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사심(邪心)을 버리고 정직과 성실로써 일체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무자기를 실행하여 매사에 순결하고 겸손하고 어질고 착한 마음을 가질 때 개인의 자아 실현은 물론 사회적 자아도 성취되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양심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대순진리의 「훈회」(訓誨)에서 말하기를 양심은 “천성 그대로의 본심”이며, “정직과 진실로써 일체의 죄악을 근절하는 인성의 본질”이라고 하였다.⁴⁵⁾ 이 말은 개인의 도덕적 행위와 개인이 살아가기 위한 규범인 개인 윤리와 양심성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⁴⁶⁾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덕목(德目), 즉 개인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개인의 품성을 말한다.

대순사상에서는 마음이 사람의 행동 기능을 주관하므로 편벽됨이 없고 사사됨이 없는 마음의 안정 상태를 항상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마음의 안정이 중요하다. 마음의 안정이란 사물이 안전하게 자리잡고 있어, 심한 동요나 변화의 우려가 없는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물리적 측면에서 안정이란 사물의 중심(重心)이 물체의 바닥의 중심(中心)에 있어, 사물에 어떤 힘을 가했을 때에 그것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지

45) 대순진리회 편, 대순진리회요람(서울: 대순진리회교무부, 1969), p. 19.

46) 양심성(良心性)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의 욕망 충족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에 관심을 갖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행동을 말한다. 양심성에 대한 최고의 가치는 어떤 대상에 대한 소유보다는 인간 생명의 존중과 존엄성, 그리고 사회성에 최상의 가치를 두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는 것을 뜻한다. 물리학에서는 질량이 큰 물체는 가속되기가 어렵다고 한다. 사물의 중심이 묵직하게 자리잡은 경우 그 물체에 어떤 힘을 가해 변형시킨다는 것이 어렵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고 흔히 ‘묵직하다, 듬직하다’고 말하곤 하는데 이것은 ‘믿음직하다, 신뢰할 수 있다’는 말과 통한다. 물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경우에도 인격이 성숙된 사람, 마음이 굳건하여 경거망동하지 않는 사람은 중심이 꼭 잡혀 있어 사사로운 일에 엷매이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희구한다.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과 정신이 편안해져야 하는데, 마음의 평안은 무자기에 의해 가능하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무자기(無自欺)는 정심(正心)과 정대(正大)로 표현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 마음을 바로 하는 무자기는 마음의 정대를 말하는 것이며, 방심을 버리고 정심을 찾으려는 마음의 수련을 말한다. 그 정심에도 통줄이 내려지는 것이니 마음의 안정은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정심과 정대 등을 통해 비로소 완결된다. 무자기를 실행하려면 훈회(訓誨)⁴⁷⁾를 실천하는 것이고, 훈회를 바르게 실행하려는 정신적 변화가 정신개혁이라 할 수 있다. 대순사상의 훈회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이다.

1) 마음을 속이지 말라.

인간은 몸(육체)과 마음(영혼)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존재이다. 물질인 몸이 화학물질인 여러 음식물을 먹음으로써 그 성분에 영향을 받아 건강도 유지하고 성장한다. 반대로 나쁜 음식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올바른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마음 역시 마찬가지이다. 마음은 언동(言動)에 의해서 영향받기 때문에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발전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가 되게 할 것인지가 언동에 의해서 결정된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말고 천성인 양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사람의 모든 언어나 행동은 모두 마음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그 마음에는 천성 그대로의 양심과 물욕에 의해 발동하는 사심이 있다. 원래 인성

47)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대순진리회요람」(서울: 대순진리회교무부, 1969), p. 18~21.

의 본질은 양심이지만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그것이 사심으로 변해 도리에 어긋나는 언동을 함으로써 죄악이 발생한다. 사람은 언제나 양심인 천성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정직과 진실로써 살아야 한다.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 것이며, 또 마음을 항상 깨끗이 가져야 함을 증산은 강조한다. 심지어 증산은 “사람과 사귄 때 마음을 통할 것이어늘 어찌 마음을 속이느냐”⁴⁸⁾고까지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남을 속이거나 남의 것을 탐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약 사람이 남을 속이거나 부당하게 자리를 탐내어 편벽된 처사를 한다면 신명들도 노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올바르게 깨끗한 마음을 갖고 교화를 받아 수양을 쌓고 덕을 행하여야 하며, 그렇게 될 때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복을 받게 된다고 한다.

「마음은 일신의 주이니 사람의 모든 언어 행동은 마음의 표현이다. 그 마음에는 양심 사심의 두 가지가 있다. 양심(良心)은 천성 그대로의 본심이요, 사심(邪心)은 물욕(物慾)에 의하여 발동하는 욕심이다. 원래 인성(人性)의 본질은 양심인데 사심에 사로잡혀 도리에 어긋나는 언동(言動)을 감행하게 됨이니 사심을 버리고 양심인 천성(天性)을 되찾기에 전념하라. 인간의 모든 죄악의 근원은 마음을 속이는 데서 비롯하여 일어나는 것인즉 인성의 본질인 정직과 진실로써 일체의 죄악을 근절하라」⁴⁹⁾

“마음을 깨끗이 가져야 복이 이르나니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도적의 기운이 따라붙어 복을 이루지 못하나니라.”⁵⁰⁾

“신명은 탐내어 부당한 자리에 앉거나 일들을 편벽되게 처사하는 자들의 덜미를 쳐서 물리치나니라. 자리를 탐내지 말며 편벽된 처사를 삼가하고 덕을 닦기를 힘쓰고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라. 신명들이 자리를 정하여 서로 받들어 앉히리라.”⁵¹⁾

“남을 속이지 말 것이니 비록 성냥갑이라도 다 쓴 뒤에는 빈 갑을 반드시 깨어서 버려야 하나니라.”⁵²⁾

48) 같은 책, “행록: 4-18.”, p. 63.

49) 앞의 책, 「대순진리회요람」, pp. 18~19.

50) 앞의 책, “교법: 1-21.”, p. 225.

51) 같은 책, “교법: 1-29.”, p. 226.

2) 언덕(言德)을 잘 가지라.

사람이 늘 사용하는 말은 한 마디 한 마디가 조리에 맞아야 하며 착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서로 주고 받아야 한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며 덕은 도심의 자취이기 때문이다. 남에게 선하게 말을 하느냐 아니면 악하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자신에게 화가 오기도 하고 복이 오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름지기 언제나 말을 함에 있어서 앞뒤를 잘 가려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한다.

「말은 마음의 소리요 덕(德)은 도심(道心)의 자취라. 나의 선악(善惡)은 말에 의하여 남에게 표현되는 것이니 남에게 말을 선하게 하면 남 잘되는 여음(餘蔭)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고, 말을 악하게 하면 남 해치는 여양(餘殃)이 밀려 점점 큰 재앙이 되어 내 몸에 이른다. 화(禍)와 복(福)은 언제나 언덕(言德)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니 언덕을 특별히 삼가하라.」⁵³⁾

『명심보감』 <언어편>에 이런 말이 있다. “말이 이치에 맞지 아니하면 말하지 아니함만 같지 못하느니라”,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의 문이요, 몸을 망치게 하는 도끼와 같으니라”,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따사롭기가 솜과 같고, 사람을 해치는 말은 날카롭기가 가시와 같아서, 한 마디 말이 중하기가 천금과 같고, 한 마디 말이 사람을 해침은 아프기가 칼로 베는 것과 같느니라.”⁵⁴⁾ 또 <계선편>에 “나에게 선하게 하는 자에게 나 또한 선하게 하고, 나에게 악하게 하는 자에게도 나 또한 선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미 남에게 악하게 아니 하였으면, 남도 나에게 악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⁵⁵⁾ 이 말들은 하나같이 말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치에 맞게 해야 하며, 말한 마디 잘못하면 근심을 불러오고 재앙이 몸에 미치며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경고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기에

52) 같은 책, “교법: 1-57.”, p. 231.

53) 앞의 책, 「대순진리회요람」, p. 19.

54) 『明心寶鑑』 <言語篇>, “言不中理 不如不言”, “口舌者 禍患之門 滅身之斧也”, “利人之言 煖如綿絮 傷人之語 利如荊棘 一言利人 重值千金 一語傷人 痛如刀割.”

55) 같은 책, <繼善篇>, “莊子曰 於我善者 我亦善之 於我惡者 我亦善之 我既於人 無惡 人能於我 無惡哉.”

사람은 말을 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숨과 같이 따뜻한 말을 골라 하되, 남을 중상하는 가시 돋힌 말은 극히 삼가야 하는 것이다.

모든 말은 상대방에게 뭔가 특정한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질문을 하는 의도는 상대방이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대답해주는 것이다. 제안의 의도는 상대방이 그것을 잘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위협은 저지를, 조사(弔詞)는 위로를 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교육적인 말의 의도는 가르치는 것이다. 『명심보감』 <성심편>에서의 “황금 천 냥이 귀한 것이 아니고, 남의 좋은 말 한 마디가 천금(千金)보다 낫다” (黃金千兩 未爲貴 得人一語 勝千金)는 말과 같이, 말의 영향은 남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람은 말을 통해서 스스로 인격을 형성하며, 말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사람으로써 대접을 받는다. 사람의 교양과 지식도 바로 말을 통해서 측정되기도 한다. 고운 말을 즐겨하는 사람은 성품이 착하고 온화하나 그 반대로 악한 말이나 사나운 말을 즐겨하는 사람은 성질이 폭악하고 남을 해치기 잘하는 성품으로 변하기 쉽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해치기도 한다. 말을 통해 남을 모함하거나 중상한다는 것은 누워서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다. 즉 내가 남에게 악하게 하지 않는 이상 남도 나에게 악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에게 대해서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나는 그를 용서하고 더욱 선하게 그를 대해준다면 그는 감화를 받아서 잘못을 뉘우치고 또한 나에게 선하게 대할 것이다.

말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이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남의 시비나 누행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되며, 특히 언덕을 특별히 삼가야만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증산은 강조한다. 증산은 또 “나의 말이 곧 약이라.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위안하기도 하며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거슬리게도 하며 말로써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며 말로써 죄에 걸린 자를 풀어주기도 하니 이것은 나의 말이 곧 약인 까닭이니라. 충언이 역이로되 이어행(忠言逆耳利於行)이라. 나는 허망한 말을 아니 하나니 내 말을 믿으라”⁵⁶⁾고 하셨다. 이 말은 『명심보감』 <성심편>에서의 “반마디 그릇된 말이 평생의

56) 같은 책, “교법: 2-1.”, p. 234.

덕을 허물어뜨린다”(半句非言 誤損平生之德) 라는 말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하겠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입은 사람을 해치게 하는 도끼와 같으며, 말은 혀를 자르는 칼과도 같다. 사람의 행복과 경사(慶事)는 대부분 선행을 쌓는 데서 생기고, 범용(凡庸)을 초월하여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 언덕이 진실한 데서 얻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입을 막고 자신의 혀를 깊이 감추어야 한다. 즉 사람은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숨과 같이 따뜻한 말은 하되, 남을 중상 모략하는 가시 돋친 말은 극히 삼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몸이 어느 곳에 있어도 편안할 것이며, 또한 모든 일에 안정을 갖게 될 것이다.

3) 척을 짓지 말라.

사람은 남에게 척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증산은 강조한다. 척은 나에게 대한 남의 원한이며, 그것은 또한 남으로 하여금 나에게 대하여 원한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남을 미워하거나 남의 호의를 거스리는 것이 모두 척을 짓는 행위이다. 따라서 항상 남을 사랑하고 어진 마음을 가져 온공, 양순, 겸손, 사양의 덕으로 남에게 척을 지어서는 안되며 그래야만 복을 누림은 물론 자신의 안정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척(慼)은 나에게 대한 남의 원한(怨恨)이니, 곧 남으로 하여금 나에게 대하여 원한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을 미워하는 것이나 남의 호의(好意)를 거스리는 것이 모두 척을 짓는 행위인즉, 항상 남을 사랑하고 어진 마음을 가져 온공(溫恭) 양순(良順) 겸손(謙遜) 사양(辭讓)의 덕으로써 남을 대할 때에 척을 짓지 않도록 하라.」 57)

『명심보감』 <계선편>에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악이 모두 저절로 일어난다” 58), <성심편>에 “사람에게 원수를 맺는 것을 일러 재앙을 심는 것과 같다 하고, 선을 버려 두고 행하지 않는 것을 일러 스스로를 해치는 것과 같다”, “신묘한 일이라도 원한의 병은 고치기 어렵고, 뜻밖에 생기는 재물도 운명이 궁한 사람은 부자가 못된다. 일을 생기게 하고 나

57) 같은 책, pp. 19~20.

58) 『明心寶鑑』, <繼善篇>, “莊子曰 一日不念善 諸惡 皆自起.”

서 일이 생기는 것을 원망하지 말며, 남을 해치고 나서 남이 나를 해치는 것을 화내지 말라. 천지간 모든 일은 다 응보(應報)가 있나니, 멀면 자손에게 오고 가까우면 자기 몸에 오느니라”⁵⁹⁾고 하였다. 이 말은 사람은 대개 악은 잘 행하나 선은 잘 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선을 행함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므로 사람은 언제나 선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더더욱 남에게 원한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한 번 남의 가슴 속에 원한을 품도록 하면 그 원한은 영원히 가시어지지 않으며, 어느 때 무서운 보복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또 과거나 현재를 막론하고 남과 원수를 맺는 일로 인하여 몸이 죽고 집안이 패망하는 무서운 화를 입는 일도 너무나 많다. 그리고 내가 남을 해치게 되면 남도 나를 해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될 수 있는 한 남과 척을 짓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증산은 이렇게 말한다.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후천 선경을 열고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려하노라...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으로 무극대운(無極大運)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 공정(天地公庭)에 참여하라”⁶⁰⁾

“...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라. 이것이 척이 되어 보복하나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나니라.”⁶¹⁾

증산은 고해에 빠진 중생을 건지기 위한 천지 공정의 전제 조건으로 사람은 모든 일에 조심할 것과 남에게 척을 짓지 말 것과 죄를 멀리할 것과 순결한 마음을 가질 것을 강조한다. 만약 남을 미워하거나 남에게 원한을 사게 되면 신명이 먼저 알고 척이 되어 보복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척은 저지르는 측에서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 척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서 원한의 근원이 된다. 따라서 척은 먼저 자신이 알고 그것을 참회하여야

59) 같은 책, <省心篇>, “景行錄 云 結怨於人 謂之種禍 捨善不爲 謂之自賊”, “자
 潼帝君垂訓 曰 妙藥 難醫冤債病 橫財 不富命窮人 生事事生 君莫怨 害人人害
 汝休嗔 天地自然皆有報 遠在兒孫 近在自身.”

60)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앞의 책, “예시: 17.”, pp. 314~315.

61) 같은 책, “교법: 2-44.”, p. 242.

상대방이 그로 인해서 품은 원한이 풀리는 것이다.⁶²⁾ 종도 김경학을 꾸짖는 증산의 “너를 꾸짖는 것은 네 몸에 있는 두 척신을 물리쳐 내려는 것이니라” 고 한 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증산은 또 말한다.

“지금은 신명시대니 삼가 힘써 닦고 죄를 짓지 말라. 새 기운이 돌아 닦칠 때에 신명들이 불갈을 들고 죄 지은 것을 밝히려 할 때에 죄 지은 자는 정신을 잃으리라.”⁶³⁾

“이제 해원시대를 당하여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나니 만일 너희들이 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후천에 또 다시 악의 씨를 뿌리게 되니 나를 좇으려거든 잘 생각하여라.”⁶⁴⁾

증산은 사람에게 스스로 죄를 멀리하고 원한과 악을 피해 모든 일에 선을 행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은 천명(天命)이며, 악과 불의를 행하는 것은 그러한 천명에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은 매사에 척을 짓지 말아야 스스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고 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선경 사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4)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은혜란 베풀어주는 혜택, 그것도 주로 남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혜택을 말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갚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은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또 자신의 마음이 안정되고 그리고 자신의 생활이 늘 평안해진다.

「은혜라 함은 남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혜택이요. 저버림이라 함은 잊고 배반 함이니, 은혜를 받거든 반드시 갚아야 한다. 생(生)과 수명(壽命)과 복록은 천지의 은혜이니 성(誠)·경(敬)·신(信)으로써 천지 보은(報恩)의 대의를 세워 인도(人道)를 다하고, 보명(保命)과 안주(安住)는 국가 사회의 은혜이니 헌신 봉사의 충성으로써 사회발전과 공동복리를 도모

62)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楊茂木, “통일기반 사상으로서의 解冤相生,” 「大巡思想論叢」-제4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6), pp. 114~115 참조.

63)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앞의 책, “교법: 3-5.”, p. 246.

64) 같은 책, “교법: 3-15.”, pp. 249~250.

하며 국민의 도리를 다하고, 출생과 양육은 부모의 은혜이니 숭선(崇先) 보본(報本)의 대의로 효도를 다하고, 교도(教導) 육성은 스승의 은혜이니 봉교(奉教) 포덕(布德)으로써 제도(弟道)를 다하고, 생활과 녹작(祿爵)은 직업의 은혜이니 충실과 근면으로써 직분을 다하라.」⁶⁵⁾

『명심보감』 <계선편>에,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라. 인생이 어느 곳에서 서로 만나지 않으랴? 원수와 원한을 맺지 말라. 길 좁은 곳에서 만나면 피하기 어렵다”, “나에게 선하게 하는 자에게 나 또한 선하게 하고, 나에게 악하게 하는 자에게도 나 또한 선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미 남에게 악하게 아니하였으면, 남도 나에게 악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⁶⁶⁾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사람은 언제나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푸는 데 힘써야 함은 물론 언제나 남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아는 아량이 있어야 함을 말한다 하겠다. 무상(無常)한 인간의 삶이란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대개 역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희열을 느끼며 또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된다. 또 내가 남을 도와줌으로써 남도 나를 돕게 되며, 따라서 발전과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조선과 같이 신명을 잘 대접하는 곳이 이 세상에 없도다. 신명들이 그 은혜를 갚고자 제각기 소원에 따라 부족함이 없이 받들어 줄 것이므로 도인들은 천하사에만 아무 꺼리낌 없이 종사하게 되리라.”⁶⁷⁾

“이제 해원의 때를 당하여 모든 신명이 신농과 태공의 은혜를 보답하라.”⁶⁸⁾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아름다운 이름을 남겼다거나 큰 사업을 이룩한 사람 가운데는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푼 것이 그 원동력이 된 예가 허다하다. 때문에 마음을 악하게 가지고 남과 원수가 된다거나 원한을 맺는 일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물론 나도 잘하겠지만,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또한 잘해야만 된다. 더욱이 증산

65)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앞의 책, p. 20.

66) 『明心寶鑑』 <繼善篇>, “景行錄 曰 恩義廣施 人生何處不相逢 讐怨莫結 路逢狹處難回避.”, “莊子曰 於我善者 我亦善之 於我惡者 我亦善之 我既於人 無惡 人能於我 無惡哉.”

67)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앞의 책, “교법: 3-22.”, p. 254.

68) 같은 책, “예시: 22.”, p. 316.

은 신명(神明)도 은혜를 입으면 그것을 갚고자 한다고 하면서 신명을 잘 대접해야 한다고 하셨다.

5) 남을 잘 되게 하라.

을 잘 되게 함은 상생대도의 기본원리요 구제창생의 근본이념이다. 그러기에 사람은 누구나 남을 위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또 모든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과 상부상조하여야 한다. 남과 더불어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을 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을 잘 되게 해야 한다는 사상은 바로 사람을 존중하는 사상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사상이기도 하다.

「남을 잘 되게 함은 상생대도(相生大道)의 기본원리요 구제창생의 근본이념이라. 남을 위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말고, 성사(成事)에는 타인과의 힘을 합하여야 된다는 정신을 가져 협동생활에 일치 협력이 되게 하라.」⁶⁹⁾

『명심보감』 <존심편>(存心篇)에, “박하게 베풀고 후하게 바라는 사람에게는 보답이 없고, 몸이 귀하게 되고 나서 천했던 때를 잊는 사람은 오래 계속하지 못한다.”⁷⁰⁾ “은혜를 베풀거든 그 보답을 구하지 말고, 남에게 주었거든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⁷¹⁾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남을 도움에 있어서는 순수한 양심과 도덕심에서 해야지 그 반대급부를 바라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은혜를 베풀다는 일은 어디까지나 사랑의 정신에 근거를 둔 미덕(美德)에 그칠 뿐으로 그 이상의 것이 개재되어서는 안되며, 또 일단 남에게 물건을 준 이상 나중에 후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좌우명(座右銘)에 “남에게 은혜를 베풀거든 이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施人慎勿念)고 한 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명심보감』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즉 요순 때 백성들이 지어 불렀던 노래 가운데, “해 뜨면 나가 일하고 해 지면 들어가 쉬네. 밥 갈아 먹고 우

69) 같은 책, pp. 20~21.

70) 『明心寶鑑』, <存心篇>, “素書云 薄施厚望者 不報 貴而忘賤者 不久.”

71) 같은 책, <存心篇>, “施恩 勿求報 與人 勿追悔.”

물 파서 물 마시니, 임금의 힘이 내게 무엇이 있나” 72) 라는 이야기이다. 이 노래 가사를 음미해 보면, 요 임금이나 순 임금이 어진 정치를 해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나 이것을 표면에 나타내서 백성들에게 알리려 들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안정과 평화로움을 가져다 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요 임금이나 순 임금은 순수한 자신의 양심과 도덕심에서 어진 정치를 펴서 백성들을 보살피고 백성들에게 시혜(施惠)를 베풀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일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남이 잘 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되나니 천명숙이 거사할 때에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는 마음을 두었으므로 죽어서 잘 되어 조선 명부가 되었느니라.” 73)

“상제께서 오셔서 천지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를 세워 후천 선경을 열어놓으시고 신도를 풀어 조화하여 도수를 굳건히 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신 후에 인사를 조화하니 만민이 상제를 하느님으로 추앙하는 바가 되었도다.” 74)

이러한 사상은 우리 민족정신의 정수이기도 한, 바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단군의 홍익인간(弘益人間) 사상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또 일면 기독교의 박애정신, 유교의 인, 그리고 불교의 자비심과도 상통하는 바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름지기 남을 돕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며, 또 이것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러나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작은 은혜를 베풀고 그 몇 갑절의 보답을 바란다면 오히려 도와준 동기가 불순하다. 이런 사람은 남을 도와주고도 때로는 상대방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서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도리어 서로 감정적 대립을 가져오게도 한다. 따라서 사람은 매사에 남을 잘되게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안정을 갖게 될 것이다.

72) 이기석 역해, 『명심보감』 (서울: 홍신문화사, 1996), p. 83.: “日出而作日入而息 耕田而食鑿井而飲 帝力何有於我哉.”

73)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앞의 책, “교법: 1-2.”, p. 221.

74) 같은 책, “예시: 9.”, p. 313.

VI. 결론

이상으로 인간의 마음과 본성, 그리고 무자기와 정신개벽의 실현 등에 관해서 고찰하였다. 인간의 마음에 대한 개념 정의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정신작용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대순진리의 목적인 무자기는 이러한 정신 작용을 개벽으로 정의하고 있어 인간의 본질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스스로를 갈고 닦는 가운데 정신개벽이 이루어지면 이는 자신에게 엄정한 무자기가 되며 이를 통해 세상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궁극의 개변을 이룰 수 있다. 개인의 개벽을 통한 집단이나 사회의 개변이 나아가 인류 전체를 계몽시킬 수 있는 의식혁명의 단초를 이룰 수 있다.

개인과 사회는 유기적인 연결을 이루고 있으며 낱알의 개인의 발전이 전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그런 점에서 개인과 사회는 동일체의 양면과도 같은 존재이다. 이는 어느 한 축의 발전이 다른 한 축의 발전을 가져오며 개인의 파산처럼 어느 한 축이 부실해지면 전체 사회가 부실해지는 것과 같다.

대순사상에서 마음에 양심(良心)과 사심(邪心) 두 가지가 있다고 한 것은 마음의 개벽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즉 마음은 마음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수련과 연마를 통하여 천성(天性) 그대로의 본심인 양심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무자기는 물욕에 의하여 발동하는 욕심을 버리고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신(神)과 심오한 관계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맹자(孟子)가 성선설을 주장하며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한 것이나 순자(荀子)처럼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주장하는 것, 혹은 고자(告子)와 같이 인간의 본성은 선함도 없고 선하지 않음도 없다고 하는 성무선무악설(性無善無惡說) 등을 뛰어넘어 현세의 누구나 이룰 수 있는 실천가능한 목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과격적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아니면 선함도 없고 선하지 않은 것도 없는 것인지 하는 철학적 사변을 넘어서서 인간이 스스로 갖추어야 할 덕목을 제시하고 그에 이르는 노력과 그 노력의 당위성

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물욕에 빠지면 그 사회가 모두 반목과 투쟁으로 얼룩지게 되나 이것을 해원으로 없앤 대순의 진리 안에서는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는 가운데 후천선경이 이루어진다고 대순사상은 말하고 있다. 이같은 후천선경 세계에서는 인간이 본래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넘어서 누구나 선한 사람으로서 살기 좋은 낙원을 이루고 산다는 것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 증산은 예로부터 쌓인 원(冤)을 풀고 원에 의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했다.

무자기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니 정신개벽을 통해 인간정신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고 무자기를 실행하여 새로운 세계를 여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 정신개벽은 이처럼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해 본연의 양심을 완전히 회복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 무자기 - 정신개벽은 인간이 마음을 바르게 하고 정신의 대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대순사상의 주요한 교리의 하나이다.

살펴 본 바와 같이 인간의 마음과 본성에 관해서는 매우 다양한 이론과 학설이 있지만 대순사상에서는 마음이 인간의 주체로서 인간의 모든 언어와 행동은 마음의 표현이라 한다. 인간의 마음은 양심(良心)과 사심(邪心)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인간의 말과 행동은 양심을 갖고 있느냐 사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양심을 갖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심과는 달리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사심에 의해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자기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품성의 함양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사심에 의해 행동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 때문에 남을 속일 수도 없으며 따라서 무자기로 무장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은 덕목으로서 다스려지는 해원상생의 새로운 세계로서 번영을 구가할 것이다. 그래서 대순사상에서 목적의 첫째로 무자기-정신개벽(無自欺-精神開關)을 자리하도록 한 것이며 무자기는 곧 정신개벽을 통해 이루어짐을 설명하고자 짚을 이루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자기는 곧 인간이 본래 갖고 있는 양심을 회복하여 양심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모든 사람은 양심대로 살고 싶지만, 사심에 의해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것은 인간 사회가 양심대로 행동하였을 때에 득을 보지 못하고 손해나 피해를 보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인간이 양심을 유지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싶어도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손해를 본다는 피해의식에 의해 사심이 발동하게 된다. 그리하여 양심에 가책을 받으면서도 사심에 의해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되면, 이러한 사심에 의한 행동이 습관화되면 만성화되어 당연시하게 된 면도 있다.

이러한 현실세계의 문제는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대순사상에서는 정신개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완전히 세상을 바꾸는 개벽작업에 의해서만이 인간이 양심에 의해 완전한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하늘의 역사를 뜯어고치고, 땅의 역사를 바로잡으며 후천 개벽과 지상선경 건설의 도수를 짜놓았는데, 후천세계는 개벽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다. 개벽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사상은 인류의 새로운 문화시대를 열어 개인의 영적 발전과 인류 구원의 새 세상을 열자는 것이다. 선천세계를 새로운 이상세계인 지상천국은 세계개벽에 의해 실현될 있다고 한다. 정신개벽은 세계개벽을 위한 전 단계 작업이다. 세계개벽은 천지인 삼계를 완전히 바꾸는 공사인데, 먼저 인간 정신을 개조하는 정신개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신개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은 대순사상의 훈회에 담겨져 있다. 살펴 본 바와 같이 대순사상의 훈회는 (1) 마음을 속이지 말라, (2) 언덕을 잘 가지라, (3) 척을 짓지 말라, (4)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5) 남을 잘되게 하라 등이다. 이러한 훈회는 대순사상의 실천 윤리일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윤리일 수 있다. 무자기는 곧 인간이 마음을 속이지 않는 양심을 갖고, 선한 말을 하고, 남에게 원한을 사지 않는 도덕적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과 자연으로부터 입은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은을 하는 것과, 나 보다는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하는 훈회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을 하지 못하는 데에서 정신개벽이 필요하다. 무자기를 실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의식의 변화, 그리고 나만이라도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하겠다는 굳은 신념을 갖는 것이 정신개벽이다. 사심에 의해 무질서와 각종 범죄가 난무하는 현대사회에서 무자기의 실행은 새로운 사회를 열어 가는 기본 윤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정신개벽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1. 저서

- 대순진리회 교무부(편), 전경(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대순진리회 교무부(편),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대순진리회 교무부(편), 대순진리회요람(서울: 대순진리회교무부, 1969)
대순진리회 교무부(편), 포덕교화기본원리(서울: 대순진리회교무부, 1975)
대순사상학술원(편), 대순사상논총: 제1집~제11집(경기 포천: 대순사상학술원, 1996~2001)
대순회보(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림영창·배용덕, 증산신학개론(서울: 태광문화사, 1984)
박찬수 외 옮김/Stephen Priest, Theories of the Mind: 마음의 이론(서울: 고려원, 1995)
백경남 옮김/Heinze Laufer, 社會화된 人間(서울: 서래헌, 1960)
安炳周 譯, 荀子(서울: 삼성출판사, 1977)
이기석 역해, 명심보감(서울: 흥신문화사, 1996)
李勳求 譯/Rita L. Atkinson 외, 현대심리학개론(서울: 정민사, 1988)
下中邦彦, 心理學事典(東京: 평범사, 1962)
한국철학연구회 편, 哲學研究-제16집-(서울: 한국철학연구회, 1975)

『孟子』 『周易』 『論語』 『明心寶鑑』 『荀子』

2. 논문

- 림영창, “甌鼎思想의 極致, 道通眞境,” 「대순사상논총: 제5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림영창, “대순사상의 新世紀的 考察,” 「대순사상논총: 제6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朴昇植, “대순사상과 사회복지,” 「대순사상논총: 제6집」(경기 포천: 대

- 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 安鍾法, “宗旨를 통한 大巡眞理會의 目的論 研究,” 「대순사상논총: 제6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 楊茂木, “大巡思想과 韓國政治,” 「대순사상논총: 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6)
- 楊茂木, “救援 眞理로서의 陰陽合德과 民主主義,” 「대순사상논총: 제2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 楊茂木, “天地公事와 民主主義,” 「대순사상논총: 제2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 楊茂木, “救援思想으로서의 神人調化,” 「대순사상논총: 제3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 楊茂木, “통일 기반 사상으로서의 解冤相生,” 「대순사상논총: 제4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 楊茂木, “宗教와 文學을 통한 道通眞境 思想의 考察,” 「대순사상논총: 제5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 楊茂木, “대순사상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실현,” 「대순사상논총: 제6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 楊茂木, “대순사상에서의 안심과 정치문화의 상관성 고찰,” 「대순사상논총: 제7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9)
- 尹起鳳, “宗旨의 宗教學的 理解,” 「대순사상논총: 제6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 李京源, “대순종지와 천지공사,” 「대순사상논총: 제6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88)
- 李恒寧, “대순종지의 문명사적 意義,” 「대순사상논총: 제6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 鄭大珍, “大巡思想 研究를 위한 提言,” 「대순사상논총: 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6)
- 鄭大珍, “大巡宗旨의 理解,” 「대순사상논총: 제6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曹泰龍, “大巡眞理會의 宗旨에 관한 研究,” 「대순사상논총: 제6집」 (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崔東熙, “大巡眞理의 宗旨에 대한 體系的인 理解,” 「대순사상논총: 제6집」 (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